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Kim Sangkyu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A-501 라디오는 누가 디자인했나? Who Designed the A-501 Radio?

1. 서론
2. A-501에 대한 인식과 쟁점
 - 2.1. A-501에 대한 인식
 - 2.2. 쟁점1: 국산 1호 라디오인가?
 - 2.3. 쟁점2: 누가 디자인했는가?
 - 2.4. 쟁점3: 디자인 결과물인가?
3. A-501의 디자이너에 대한 주장
 - 3.1. 박용귀 설
 - 3.2. 김해수 설
4. 디자이너 불일치의 원인
 - 4.1. 디자인 크레딧의 부재
 - 4.2. 기억과 구술의 문제
 - 4.3. 엔지니어 중심의 시각
 - 4.4. 연구 부재
5. 결론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2년 7월 8일
심사일 2022년 7월 11 -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2
Reviewed Date 11-25 July 2022
Accepted Date 1 August 2022

요약

금성 라디오 A-501은 한국현대사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디자인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디자인 관련 자료에는 A-501을 포함하여 금성사의 초기 가전제품을 박용귀가 디자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김해수라는 엔지니어가 디자인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금성사의 사료 등 어떤 자료에도 A-501의 디자이너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내 기업이 자사 제품의 디자이너를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 면에서 한 라디오의 디자이너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계와 대중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등록문화재이며 대기업이 한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라고 자랑할 만큼 비중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디자인 크레딧에 대한 인식, 구술 채록, 디자인 연구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A-501 라디오의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와 한국의 디자인 분야가 그동안 문화유산으로 여겨온 것의 창작 주체에 대해 무심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갖는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다.

핵심어

A-501, 국산라디오, 박용귀, 금성사

Abstract

Goldstar Radio A-501 is taken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not only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but also in the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in Korea. It was recorded that Park Yong-gui designed the early home appliances of Goldstar, including A-501.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known that A-501 was designed by an engineer Kim Hae-soo. However, the designer of A-501 has not been mentioned in any material such as the historical materials of Goldstar.

It is rare for a Korean company to reveal the designer of its product. In that sense, it may not matter who the designer of a radio is. However, the fact that the design researchers and the public know the designer differently can be a problem. In particular, it can be a serious problem in that A-501 is a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of Korea and an important product for a company to boast that it is Korea's first radio.

The causes of appearance of this phenomenon can be found in three categories: recognition of design credit, oral statement recording, and design research.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reveal who the designer of the A-501 radio is. Ra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and the field of design in Korea are indifferent to the creator of what has been regarded as cultural heritage, and raise the problem of the foregoing.

Keywords

A-501, Korean radio, Park Yong-gui, Goldstar

1. 서론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저자를 확인하고 표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창작의 경우도 창작자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실제 창작자를 확인하여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디자이너를 표기하는 예는 드물었다. 대기업의 생산품인 경우가 특히 그렇다.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도 중요해지면서 사내 디자이너의 이름도 명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디자인 결과물의 디자이너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연구는 한국의 디자인 분야,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사물이자 유산으로 인식되는 금성사(LG 전자의 전신) 라디오 A-501(이하, A-501)의 디자이너를 제각기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표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시하고 그 정황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까지 A-501을 다룬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심층 인터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주요 대상이 이미 작고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자가 과거에 진행한 인터뷰 기록을 포함하여 기존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한 문헌들이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개인들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거나 사변적인 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정황으로 추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추정'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2. A-501에 대한 인식과 쟁점

2.1. A-501에 대한 인식

A-501은 2013년 8월 27일에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재(등록문화재 제559-2호)가 되었다. 소개글에는 “전자회로의 설계와 제품 생산의

기술 축적 등 전자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산업디자인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한국의 역사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LG전자의 사료에도 디자이너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국산 1호 라디오가 자사 제품이라는 사실에만 의미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이너 문제를 다루기 전에 A-501 자체의 쟁점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2.2. 쟁점1: 국산 1호 라디오인가?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따르면 A-501은 “1959년에 금성사에서 제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라지만 그 이전에 국내에서 생산된 라디오가 없지 않았다.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가 일본의 산요(三洋)와 기술제휴를 해서 1957년에 ‘S5-A1’이라는 모델의 라디오를 생산했다.¹ 그럼에도 S5-A1이 국산 1호 라디오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라는 주장이 있다.² A-501도 진공관 등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했으니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산이라는 데에는 논란이 남아있다. 그렇게 따지면 소규모로 라디오를 제작한 예는 더 찾을 수 있는데 천우사가 국산 부품을 사용했고 ‘Chunu’라는 영문 명패를 붙인 수신기가 제작 판매되었다. 물론 천우사도 핵심 부품은 수입품을 사용했다.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엔군사령부 경제조정실(OEC)이 달러 관리를 하면서 해외 부품 수입을 통제했고 한국 정부 역시 외화 지출

- 1 — 김형호, 『라디오 탐심』, (뜸새책방, 2021), p.192
- 2 — 김동광에 따르면, 금성사 A-501이 국산 1호로 인정받은 것은 ‘부품 국산화 비율 60퍼센트 이상’이라는 암묵적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었다.(김동광, 『라디오 키즈의 탄생-금성사 A-501 라디오를 둘러싼 사회문화사』, (궁리, 2021), p.33)
- 3 — 장영민, 『냉전기 한국 라디오 수신기의 생산과 보급』, 『언론정보연구』, 56권 4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9), p.84



[그림 1] A-501(사진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그림 2]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이트의 A-501 검색 화면 캡처(2022.6.10)

역제, 국내 시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1957년부터 라디오 완제품과 부속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장영민에 따르면, 천우사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 부품 수입을 허가받고 1957년 하반기에 라디오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58년 말에는 4가지 모델의 라디오와 전축을 신문에 광고하는 등 수입품과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천우사의 성과에 고무된 정부가 이후로 부품 수입 제한을 완화했으니 금성사를 비롯한 후발 기업들이 라디오를 자체 생산하는 데 천우 라디오가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승만 정부부터 국산 라디오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컸으므로 사회적 필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번듯한 국산 1호 라디오가 필요했다. 자립 경제의 상징인 최초의 국산 라디오라는 칭호는 A-501에 주어졌으나 당시에 대중적으로 인식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매 직후에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해서 3,000대가량이 재고로 쌓였다. 정부에서 밀수품 근절,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 그 이후에 개발한 A-503, TP-603부터 조금씩 판매되었다. 이를 미루어 추정하건대, ‘국산 1호 라디오’라는 수식어는 당시의 상황 논리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2.3. 쟁점2: 누가 디자인했는가?

우선, 디자인 분야에 알려진 A-501의 디자이너를 살펴보자. 당사자인 박용귀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두 번 있었다.⁴ 먼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초청 강연을 가졌다. 2004년에 열릴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1960’(2004.9.24-10.17) 전을 준비하면서 초창기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A-501 라디오 개발에 참여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몇몇 자료에서 접한 단편적인 사실을 꿰어맞출 정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2011년에도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에 박용귀의 건강, 특히 청력이 약해져서 인터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고 간단한 질문만 건넸다. A-501에 대한 김해수, 고을한⁵의 주장을 전하면서 당시 정황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의 답변은 당시에 디자인실이라는 이름도 없을 만큼 ‘디자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즉, 오늘날의 개념으로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명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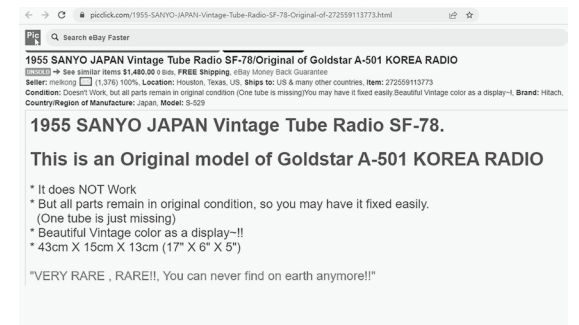
김진주가 아버지 김해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편집한 책에서는 김해수가 A-501을 만들었다고 서술되었다. 책의 부제도 “국산 라디오 1호를 만든 엔지니어 이야기”이고 실제로 산업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501을 다룬 거의 모든 문헌에는 김해수가 개발자이자 디자이너로 인용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므로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4. 쟁점3: 디자인 결과물인가?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A501을 실제 디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잘 사용하지 않았고 디자인, 개발, 설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포괄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과연 ‘디자인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 산요가 1955년에 시판한 라디오 SF-78이 A-501의 모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 경매 사이트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기하면서 중고 라디오를 판매하기도 했다.[그림 3] SF-78의 이미지만 보면 비슷한 이미지다. 또 그즈음에 히타치(日立)에서 개발한 라디오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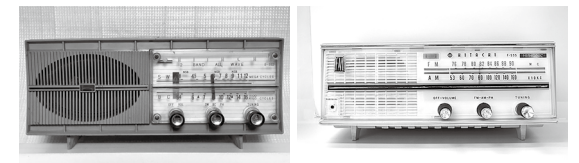
4 — 이 연구를 위한 정식 인터뷰는 아니지만 1차, 2차 인터뷰 시기와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2003.4.2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세미나실 / 2차: 2011.7.21, 사당동 식당
5 — 서울산업대 교수를 지낸 고(故) 고을한은 1960년에 금성사에 입사했다. 2011년에 금성사 근무 시절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림 3] 이베이 검색 사이트의 화면 캡처(2022.6.10)



[그림 4] 산요 라디오 SF-78



[그림 5] 왼쪽: 히타치 진공관 라디오 S-552⁶, 오른쪽: 히타치 진공관 라디오 F-555⁷

6 — 이 사진은 일본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1961년에 구입한 라디오라고 설명되어있다. 라디오박물관(radiomuseum.org)에서는 첫 생산 연도가 “1957(?)”로 표기되어있고 히타치의 공식 사이트에는 기록이 없어서 입증하기는 어렵다. (사진 출처: <https://aucview.aucfan.com/yahoo/s1036940013/>), (2022.6.1)
7 — 일본 경매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로, 첫 생산 연도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의 박물관 등 주요 기관에서 위의 산요, 히타치 모델을 소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일본에서 의미 있는 제품이자 디자인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 한국 기업들에는 일종의 트렌드로 읽혔고 판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이미지였기 때문에 모방 대상이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3. A-501의 디자이너에 대한 주장

여러 사람의 주장이 있으나 그중에서 유력한 인물을 꼽는다면 박용규와 김해수이고 이 장에서는 각각의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박용규 설

정시화는 박용규와 민철홍을 한국 공업디자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특히 박용규는 기업 내의 디자인 조직에 처음 만들어진 시점의 디자이너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여기서는 세 문헌의 인용문을 통해, 박용규를 A-501의 디자이너로 인식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때부터 회화에 대한 전공을 포기하고 디자인 연구로 전향하여 금성사에 입사한 한국 최초의 직업적인 공업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⁸

다음은 박용규가 2003년에 강연한 내용이 실린 『한국의 디자인 02』의 ‘1959년, 금성사 공업의장실 풍경’ 중 일부이다.

“작은 전자제품을 설계할 줄 아는 공대 출신 엔지니어들도 함께 일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승진해서 사장 같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설계를 도맡아서 진행했는데, 사실 물건의 외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샘플을 가져와 모방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그래도 제 양심상 도저히 그대로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디자인하면서 그걸 커버하려고 일본 샘플과는 조금씩 다른 느낌을 줬습니다.”⁹

박암중은 「한국디자인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에서 박용규의 프로필을 정리한 바 있다. 이 책은 산업자원부의 「산업디자인 기술기반 개발산업」 연구를 진행한 최종보고서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락희화학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9년 2월 금성사가 창립되면서 의장실에 입사하여 제품디자이너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의장실의 책임자로 승진하여 1959년 10월 국내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인 ‘A-501’을 비롯하여 … 1977년 퇴직할 때까지 약 20년간 가전제품 디자인을 했다. 1958년 도안실로 출발한 디자인 부서를 1년 만에 공업의장실로 발전시켰고”¹⁰

그 뒤에 디자인연구자들이 쓴 단행본과 글에서 A-501의 디자이너는 언제나 박용규였다.

3.2. 김해수 설

디자인 분야 밖에서는 A-501이 김해수의 디자인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라디오』에서 그렇게

8 — 정시화, 『한국의 현대 디자인』, (열화당, 1976), p.50

9 — 구상 외, 『한국의 디자인 02: 시각문화의 내밀한 연대기』, (디플Biz, 2008), p.59

10 — 동서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국디자인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1999), p.253

11 — 이 책은 2007년에 『아버지의 라디오』(느린걸음)로 첫 출간되었고 2016년에 『아버지의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내용은 동일하나 이 논문에서는 개정판을 인용한다.

기록되었기 때문이다.¹¹ 이 책은 김진주가 아버지인 김해수의 유고를 보완하여 출간한 책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 ‘디자인’을 설계와 분리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산업디자이너’를 명시하기도 했다.

“나는 라디오 캐비닛의 디자인은 물론, 그 시대 금성사를 상징했던 왕관 모양의 셋별 마크와 ‘Gold Star’ 로고까지 창안하는 산업디자이너 역할까지 떠맡게 되었다.”¹²

1970년대가 되어서야 기업에서 ‘디자인’을 명시한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A-501을 개발하던 당시에 엔지니어가 위의 인용문처럼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만년에 회고하면서 자신이 많은 역할을 했고 오늘날 디자인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까지 도맡았다고 피력한 말로 추정해볼 수 있다.

김동광은 『라디오 키즈의 탄생』에서 “금성사 최초의 라디오 A-501을 설계하고 제작한 실질적인 인물은 하동중학 교사 출신인 김해수 주임이었다”¹³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김해수와 관련된 모든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아버지의 라디오』다.

“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한 끝에 최신형 일체 라디오를 모방해서 옆으로 길고 나지막한 몸체의 전면에 투명 다이얼판을 붙인 세련된 형태의 라디오 캐비닛을 그려서 헨케 씨에게 보였다.”¹⁴

김해수를 디자이너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김동광은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외국인의 우월의식에 저항하여 독자적인 디자인을 고수한 것으로 설명한다. 원전이 되는 『아버지의 라디오』에는 김해수의 제안을 헨케라는 상관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서로 다투는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다. 김해수의 말대로라면, 헨케(H.W.Henke)가 생각한 모양은 “고딕양식 교회건물처럼 아래위로

긴 상자의 윗면이 둥그스름한” 것이었으니 베이클라이트로 제작된 1950년대 독일 라디오의 전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술고문으로 채용한 독일 엔지니어 헨케와 한국 엔지니어의 대립 구도로 묘사한 덕분에 한국 엔지니어가 승리한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독일 모델을 모방할 것인지 일본 모델을 모방할 것인지 갈등하던 중에 후자를 택한 것일 뿐이다.

12 —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2016), p.145

13 — 김동광, 『라디오 키즈의 탄생』, p.12

14 —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p.145

4. 디자이너 불일치의 원인

4.1. 디자인 크레딧의 부재

누가 디자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동광의 주장대로 A-501 라디오는 “실제 누가 설계를 했는지” 따지는 것보다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국산 라디오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수사적 정의”로서 국산 1호 라디오가 핵심이었다.¹⁵ 기업에서 사내 개발의 크레딧을 밝히지 않는 관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까지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 주체에 디자이너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A-501이 생산되던 그 시기에 디자이너를 밝힌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용귀는 1967년 일본 히타치 의장연구소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온 뒤에야 체계적으로 디자인실을 만들었다고 회고한다.¹⁶ 실제로 1975년에 금성사가 공업의장실을 디자인연구소로 개칭하고 1976년에는 20명의 디자이너가 근무하는 디자인실을 운영했다.¹⁷ 따라서 기구 설계와 디자인의 차이를 기업이 인정하는 것은 1970년대야 가능했다.

최근에 기업들이 디자이너를 밝히는 것은 디자이너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기보다는 그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명분이 클 것이다. 굿디자인, 해외 디자이너 어워드 수상이 그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언론도 해외 스타 디자이너인 경우에만 언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이러한 인식은 LG 전자 이현조 고문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의욕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설립과 함께 독일인 기술자 헨케씨를 영입하고 기술인력을 모집해 설계팀을 구성한 지 1년 만인 1959년 전자제품 1호인 5개의 진공관이 내장된 5구 진공관식 라디오(모델명 A501)가 탄생했습니다.”¹⁸

그는 1959년에 금성사의 영업과장이었지만 당시에 국산 라디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전사적인 역량이 집결되는 것이었으니 개발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이는 ‘헨케’를 기억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정작 내부의 핵심 인력은 언급하지 않는다.

4.2. 기억과 구술의 문제

개인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중요하다. 특히, A-501 라디오 개발 과정에 대한 신뢰할만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술 증언(oral testimony)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직접 경험을 한 개인의 증언을 기록하는 것이다.¹⁹

『아버지의 라디오』는 구술 증언과 달리,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에 해당된다. 구술생애사는 자기 진술 내지 자기 표현적 성격도 있다.²⁰ 하지만 이 책은 부너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기록한 것이므로 연구 성과와는 거리가 있다. 즉,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 책이 다른 기록의 유일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오창섭이 민철홍과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출간한 책 『제로에서 시작하라』에는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한국공예시험소의 수석 디자이너로 있었는데, 1959년에 금성사에 갔었어요. 당시에 금성사에서 한국 최초로 라디오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 금성사에 도착하니까 마른 체구의 안경을 낀 상무라는 분이 우리를 맞았어요. … 그 상무라는 분이 옆에 있는 직원 보고 “미스터 헨케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초가을이라 … “우리가 참여하여 도와주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관심 없다는 듯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서 가더라고요.”²¹

1958년 가을에 입사한 기술자가 헨케와 대립각을 세울 만큼 실력자였고 “윤옥현 상무”가 개입하여 헨케와 샘플 대결을 해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예시험소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헨케가 아니라 김해수 과장을 부르는 것이 상식적이다. 1959년 가을이면 제품 출시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니 헨케가 “만들고 있다”고 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고 김해수 과장이 산업디자이너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그 상무라는 분”이 충분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창섭은 박용귀와 최병태가 김해수보다 먼저 락희화학에 입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엔지니어가 설계와 디자인을 모두 담당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며 민철홍 일행이 방문할 시점에 그 자리에 박용귀가 불려나오지 않은 점에서 박용귀가 A-501을 디자인했다는 디자인 분야의 통념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²²

4.3. 엔지니어 중심의 시각

김해수는 디자이너의 존재를 오직 다음의 한 문장에서만 밝히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공장 2층에 있던 설계실에서 조수 기술자 2명과 제도사를 데리고 라디오 설계 작업에 들어갔는데, 구인회 사장은 가끔 그곳에 들어서 내가 과로하고 있음을 염려하곤 했다.”²³

그것도 디자이너가 아니라 ‘제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디자이너가 있었지만 당시의 인식으로는 제도사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1959년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김해수가 스스로 산업디자이너 역할을 했다고 기록했으니 회고할 시점에는 제도사와 디자이너를 동일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업의장실이 만들어지면서 디자이너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디자이너가 등장했어야 한다. 일본 히타치 사에서 연수를 받던 당시의 실수담과 함께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도 디자이너는 없다. 그리고 A-501 이후의 라디오 모델과 선풍기를 다룰 때도 디자인실,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머리말에 밝힌 “그들(젊은이)에게 생산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엔지니어 정신’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라는 말에서 엔지니어에 대한 자의식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발화자 개인의 문제를 따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강조되고 과장된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억들이 비록 사실과 어긋난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기록문서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²⁴ ‘깊은 기억’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트라우마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와 대상과는 다른 층위일 수 있지만 김해수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면,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있었다면 ‘깊은 기억’에 가까우며 사실과 어긋난

15 — 김동광, 『라디오 키즈의 탄생』, p.33

16 — 구상 외, 『한국의 디자인 02: 시각문화의 내밀한 연대기』, p.69

17 —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p.97

18 — ‘특집-한국전자산업 40년 인터뷰, LG전자 이현조 고문’, 『전자신문』, (1999.2.11), <https://www.etnews.com/199902110118>, (2022.6.1)

19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p.102

20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p.102

21 — 오창섭, 『제로에서 시작하라: 민철홍과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디자인플러스, 2011), pp.209-210

22 — 오창섭, 『제로에서 시작하라』, pp.209-210

23 —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p.142

24 — 아우슈비츠 피해자가 굴뚝 네 개가 폭파되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굴뚝이 한 개였고 위안부 피해자가 검은 배를 탔다고 했지만 실제로 달랐는데 이것으로 기억의 진정성을 의심받곤 했다. 임지현은 진짜 기억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이 같은 기억이 더 진정성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인의 ‘풀뿌리 기억’에 주목한다.(임지현, 『기억전쟁』, (휴머니스트, 2019) 참조)



[그림 6] 왼쪽: 『한국의 현대 디자인』의 도판 페이지, 오른쪽: 도판 페이지의 확대 부분



라디오 (1959, 金星社) — 朴容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완수해야 할 과업에 본인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으니 생을 마감하기 전에 설계와 디자인까지 감당했다고 회고할 수 있는데 그 근간에 엔지니어의 강한 자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4. 연구 부재

김종균에 따르면, 금성사가 1958년에 박용귀, 최병태를 한국 최초의 산업디자이너로 공개 채용했고 1960년에 고을한, 김상순이 포함된 ‘공업의장실’을 발족했다고 한다.²⁵ 이 정도가 현재까지 이견이 없는 기록이다. 반면에, 최초의 산업디자인은 명확하지 않다. 즉, A-501이 한국 최초의 산업디자이너이고 그것을 최초의 산업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는 것은 정시화의 책 중 도판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박암종의 연구로 이어졌다. 그 뒤로 최초의 산업디자이너라는 환상, 연구되지 않은 믿음이 상호 참조로 이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기념전에 A-501이 전시되었는데²⁶ 디자이너가 명기되지 않았다. 다른 디자인 결과물들은 작품 명제표에 준하여 디자이너가 명기되었으므로 누락된 것은 아니었다. 디자인 지식이 있는 학예사라도 박용귀든 김해수든 명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학예연구가 중심을 차지하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A-501은 디자이너 항목 자체가 없는 수장품이자 전시품이다.



[그림 7]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2부 1950-2019' 전의 전경(사진 출처: 필자 촬영)

25 —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2013), p.112

26 —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이라는 큰 제목 아래 세 개의 전시가 연대기 순서로 열렸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2부: 1950-2019'(2019.10.17-2020.3.29)라는 부제로 열린 전시 중 '국가 주도의 개발, 우표에서 도시계획까지' 코너에 A-501이 전시되었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박용귀와 김해수라는 두 인물이 A-501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두 인물은 각각 한 권의 책에 근거하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도 두 인물을 동시에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또다른 문제는 실제로 여러 명이 설계자와 디자이너로 참여했음에도 두 인물만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정시화, 박암종의 연구가 반복적으로 참조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2007년에 나온 책 한 권이 이전의 모든 연구와 출판물에서 정설로 굳어진 것을 뒤집었고 이후에는 그 한 권이 참조되고 있다.

디자인계 내부에서 당연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인식되지 못한다는 단적인 예다. 디자인계 내부의 논리에만 갇혀 있는 것, 즉 디자인 연구가 디자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순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다. 디자이너 표기 같은 하나의 사실은 개인의 증언이나 분야 내 확신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명확한 확인을 거쳐서 사회적으로도 통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는 A-501의 디자이너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메타데이터에 아예 디자이너라는 항목이 없다.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디자인 아카이브, 디자인 박물관이 생긴다면 그때도 디자이너 항목을 비워둘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초기 디자인 활동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연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44

참고문헌

- 구상 외, (2008), 『한국의 디자인 02: 시각문화의 내밀한 연대기』, 디플Biz
- 김동광, (2021), 『라디오 키즈의 탄생-금성사 A-501 라디오를 둘러싼 사회문화사』, 궁리
- 김종균, (2008),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 김종균, (2013), 『한국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 김해수, (2016), 『아버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 오창섭, (2011), 『제로에서 시작하라: 민철홍과 한국의 산업디자인』, 디자인플렉스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장영민, (2019), 「냉전기 한국 라디오 수신기의 생산과 보급」, 『언론정보연구』, 56권 4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정시화, (1976), 『한국의 현대 디자인』, 열화당
-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1999), 『한국디자인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4413105590100&pageNo=1_1_2_0

그림 차례

- [그림 1] A-501
- [그림 2]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이트의 A-501 검색 화면 캡처
- [그림 3] 이베이 검색 사이트의 화면 캡처
- [그림 4] 산요 라디오 SF-78
- [그림 5] 왼쪽: 히타치 진공관 라디오 S-552, 오른쪽: 히타치 진공관 라디오 F-555
- [그림 6] 왼쪽: 『한국의 현대 디자인』의 도판 페이지, 오른쪽: 도판 페이지의 확대 부분
- [그림 7]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2부 1950-2019' 전의 전경